눈먼 자비는 위험을 자초한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㊸ 현장법사의 자비심에 대한 소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무서운 요괴, 홍해아가 현장법사 일행을 노립니다. 아니 일행이 아니라 현장법사를 노리는 것이지요. 현장법사는 본신이 여러 생에 거쳐 수행을 쌓아온 분이라, 요괴들이 그 고기를 먹기 위해 침을 흘리는 존재지요. 거기다 진원대선이 키우던 인삼과 열매를 얻어먹은 덕분에 더더욱 효능(?)이 강화 되었다네요. 좀 과장해서 말하면 그 고기를 한 점만 먹어도 불로장생한다나요? 그래서 여러 요괴들이 탐을 내고, 홍해아도 호시탐탐 현장법사를 잡아먹으려 노립니다.

그런데 쉽지를 않아요. 하도 요괴한테 당하다 보니 손오공을 중심으로 한 방위체제가 틀이 딱 잡혀 있거든요. 비상 사이렌 웽~ 하고 울리면 순식간에 차량통제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이크, 이건 민방공 훈련이구나. 그게 아니고 현장법사를 가운데 보호하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삼면을 에워싸 지키는 틀을 딱 갖추 놨거든요. 할 수 없이 요괴는 현장법사의 자비심에 호소하는, 이미 이전에 나왔던 요괴들이 서 먹었던 고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나무에 매달려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어린아이…. 그런데 현장법사는 또 속아 넘어가네요. 눈치 챈 손오공이 말려도 소용없어요. 미련한 저팔계가 내부의 적으로 등장하여 오히려 손오공을 공격하고, 현장법사는 구해주지 않으면 머리테를 조이는 주문을 외울 태세. 손오공도 이제는 혼자서 우기기보다는 적당히 업고 가는 척 하다 뒤쳐서서, 요괴를 패대기쳐 죽일 궁리를 하지요.

그런데 좀 답답하지 않은가요? 현장법사는 전에도 그런 요괴에게 속고서도 왜 이렇게 쉽게 또 속는 것인가요? 똑똑한 손오공 말 듣지 않고 미련한 저팔계 말은 왜 이렇게 잘 듣는 것인가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모두 자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의 장점이 있는 곳에 바로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현장법사의 자비심은 참으로 뛰어난 덕목이지만, 바로 그 성격 때문에 실수를 범하는 것이지요. 강직한 사람은 그 강직함에서 실수를 범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은 그 너그러움 때문에 실수를 범하고요.

〈논어〉에는 이런 말이 있지요. "사람의 허물은 그 사람의 부류에 따라 다르다. 그 사람이 어디에서 허물을 범하는가를 살피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허물을 범하고 실수를 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잘 살펴보면 현장법사의 사람됨을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현장법사가 이렇게 자꾸 자비심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으로 보아 현장법사는 자비로운 분에 틀림없습니다.

자, 여러분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실까요? 어떤 곳에서 허물을 범하고 실수를 하시나요? 너무 신중하게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많다구요? 그렇다면 님은 신중한 분이시군요. 너무 곧게 하려고만 하고 융통성을 발휘하지 못해 실수를 하신다구요? 그런 님은 곧은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 곳을 잘 살피면 자신의 성향을 알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자신을 나무라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살려낼 수 있도록 보완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지요? 이러한 방법이 긍정적인 방법, 적극적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허? 나칠계님? 그런 차원이 아니라구요? 늘 먹을 거 너무 좋아해서 실수하고, 여자 좋아해서 잘못하고, 놀기 좋아해서 낭패를 보신다구요? 허허~ 나칠계님은 상당히 동물적인 분이시군요. 그것을 어떻게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거기에 어떤 보완조치를 하면 그것이 장점으로 부각될까요? 삼쾌선생도 좀 난감하군요. 좀 두고두고 궁리를 해 보아야겠습니다. 흠, 그래도 한 가지 답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보이긴 하는군요. 나칠계님은 저팔계를 상당히 닮으셨고, 또 개인적으로도 저팔계를 좋아하신다 했지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의 자리에 빠짐없이 출석을 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유기 전체가 수행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아마 끝부분 쯤 가면 저팔계가 어떤 훌륭한 경지에 도달하는가가 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 결과를 보면 나칠계님이 어떤 공부를 통해 어떤 훌륭한 장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 알 수 있겠지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시선(詩仙)이라 하는 이태백(李太白)의 시에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하늘이 나를 낳았으니 반드시 쓸 데가 있으리(天生我才必有用)"라는. 어허? 그런 일로 전혀 자신감 잃은 적 없다구요? 뭐, 사는 게 그런 건데 왜 거기서 자신감을 잃느냐구요? 와, 이제 발견했습니다. 나칠계님의 진정한 장점은 바로 그런 무심함, 태평함, 나아가 후안무치(厚顔無恥)함에 있었군요. 그걸 잘 키워 보십시오. 애고, 삼쾌선생의 용어대로 '언구제러블'이네요. 이 용어에 대하 스펠을 묻는 분 있다면, 그분하곤 다시 이야기 않을 겁니다.



그림 · 최주현

요괴에게 계속 속는 현장법사
지혜보단 욕망에 기반한 판단
"자비실천도 이치에 따라야"

아무튼 현장법사의 자비심은 아직 깨닫지 못한 과정에서는 늘 과잉자비, 눈먼 자비로 작동하여 요괴의 수단에 속아넘어가 위기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거기다 그런 상태에서는 지혜로운 손오공의 충고 보다는 미련한 저팔계의 부추김에 끌리게 마련이지요. 친구관계도 보통 그렇잖아요? 무언가 지혜로운 눈으로 따갑게 충고하는 친구에게는 좀 거리감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친구에게는 쉽게 정을 주게 되지요. 자신의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군요. 지혜의 날카로운 판단보다는 정에 이끌리기 쉬운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현장법사도 마찬가지로군요. 위대한 부처를 이룰 씨앗이라 할 수 있는 자비심이 과잉자비, 눈먼 자비로 작동하고, 지혜의 인도를 무시하고 감정의 쏠림에 따르니…. 그 결과는 요괴 소굴 속에 떨어짐이라!

이렇게 되니 손오공 기운이 빠집니다. 자기는 요괴 알아보고 대비를 하는 것인데 현장법사는 "넌 어찌 그리도 자비심이 없냐!"고 야단을 칩니다. 저팔계는 거기 한팔 거듭니다. 그러다 결국 요괴한테 납치를 당하니….

손오공이 탄식을 하지요. "우리 이제 흩어져야 할까부다."

저팔계 맞장구칩니다. "옳은 말씀!"

어라? 이렇게 되면 또 찢어질 위기인가요?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삼형제가 오히려 뜻을 함께하는 계기가 되지요. 시발점은 역시 굳건한 마음의 상징인 사오정이지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라 소리칩니다.

"그게 무슨 말씀들입니까! 그 만나기 어렵다는 불법의 문중에 들어왔는데, 하루아침에 지금껏 쌓아온 공덕을 날리자는 말입니까?"

손오공이 말하지요. "그 말은 맞아. 그렇지만 요괴가 저렇게 드센데, 걸핏하면 팔계는 마음 약한 사부님은 내 말 안 듣고, 팔계는 그런 사부님 부추겨 내 뒤통수를 때리니 어쩌면 좋겠니?"

여기에 이야기가 이르렀을 때 기특하게도 저팔계가 반성을 합니다. "내가 좀 생각 없이 굴기는 했네요. 그렇지만 사오정 말대로 우리가 이대로 헤어질 수는 없다 생각해요!"

미련스럽고 철없는 저팔계까지 이렇게 나오니 손오공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대목,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늘 말썽을 일으키기만 하던 저팔계, 탐심과 욕망의 상징이던 저팔계가지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분열되어 있던 마음이 조금씩 하나로 뭉쳐지는 조짐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무튼 삼형제, 다시 의기투합하여 현장법사 구할 계책을 짜기 시작하지요. 그 시작으로 손오공이 토지신과 산신령을 소집하여 요괴의 정체를 캐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요괴가 친구의 아들이었네요. 아니, 그것도 보통 친구가 아니라 의형제를 맺었던 형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라고 해야 될, 그런 요괴군요. 그래서 손오공 자신있게 나서서, "어이! 알고 보니 내가 자네 아저씨 되는구만" 했다가 창피만 당하지요.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그게 언제 적 이야기인데…. 손오공이 부처님한테 잡혀 오행산에 깔려 지낸 세월이 몇 년이었던가요? 자그마치 500년입니다. 홍해아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 전혀 얼굴도 못 봤던 사람이 아저씨라고 나서면 누가 믿겠어요? 거기다 이제는 진영이 갈렸네요. 홍해아의 아버지 우마왕하고 형님 동생 하던 시절은 요괴놀이 시절, 이제는 불법문중에 들어서 수행을 해 나가는 스님의 신분. 공자가 말씀하셨죠. "도(道)가 같지 않으면 함께 무엇을 도모할 수 없다(道不同不相爲謀)"고. 이제 도가 달라요. 한쪽은 요괴도(?) 한쪽은 불도(佛道)로 갈렸으니, 한판의 드잡이질은 피할 길이 없네요.

싸움에는 이골이 났다는 손오공도 이 삼매의 불을 이기기 힘듭니다. 요괴가 사는 골짜기가 화운동(火雲洞)인데, 불 구름 골짜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가득 메우고 타오르는 불길! 저팔계는 바로 꽁무니를 빼버리고, 손오공도 혼자는 감당이 안되어 후퇴를 합니다.

이렇게 되니 좀 난감하게 되었지요? 어쩌나요? 힘이 빠집니다. 이럴 때는 원군 요청을 하는 것이 기본이지요. 머리를 굴려 보니, 불의 상극은 물이군요. 오행(五行)의 상생(相生) 상극(相剋) 아시지요? 상생 관계는 이렇습니다. 나무는 불을 낳고, 불은 흙을 낳고, 흙은 쇠를 낳고, 쇠는 물을 낳고, 물은 나무를 낳는다. 여기서 낳는다는 말은 도와준다는 것과 통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 반대, 상대를 이기고 해치는 관계를 상극의 관계라 합니다. 나무는 흙을 이기고, 흙은 물은 이기고, 물은 불은 이기고, 불은 쇠를 이기고, 쇠는 나무를 이긴다. 이렇게 되지요. 그러니 홍해아의 불을 이기려면 물이 필요하겠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갑자기 강물을 끌어 올 수도 없고, 홍해아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갈 수도 없으니…. 이리 저리 궁리를 하던 손오공, 예전부터 좀 부려 먹던 용왕을 생각하네요. 여의봉 같은 것도 용궁에서 강탈한 것이었지요? 이번에는 그렇게 강제적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정 이야기를 하고 네 바다의 용왕을 몽땅 끌고 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다시 싸움을 거는데…. 이거 참! 용왕이 내리는 소낙비로도 이 불이 안 꺼지는 겁니다. 기름불에 물을 부은 것처럼 더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원군까지 있어 그것을 믿고 덤빈 경우, 그것이 안통하면 더 나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손오공이 힘을 써서 뚫고 들어가 보지만, 홍해아가 손오공 얼굴에 대고 불길을 확 뿜어 버리니 손오공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뜨거움을 못견뎌 물로 뛰어갔지요. 이 상황 상당히 위험한 것 아시죠? 뜨거움과 차가움이 급격하게 바뀌면 심장마비! 바로 그렇게 되어 죽을 뻔합니다. 재미있게도 저팔계가 안마술로 구해주고요. 저팔계가 손오공 구한다고 안마술을 펼치는 대목, 이것도 그림이 좀 나오지요? 인공호흡한다고 입까지 맞대었으면 더더욱 멋진 그림이 나올 텐데…. 히힛. 아쉽게도(?),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문제는 용왕의 비로도 삼매진화를 끌 수 없으니, 이제 어찌 하느냐 입니다. 결론은 빤하다구요? 그 이야기가 이제 전개됩니다. 다음 회에 뵈어요.



